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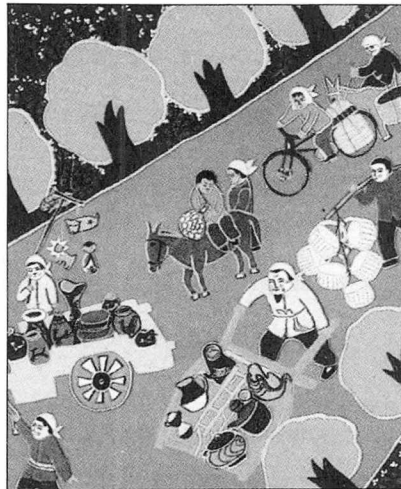
# 전환기 중국의 지하출판계 천대만상

출판물의 판매부수가 발행부수보다 많을 수 있을까? 출판량은 현저히 감소하는데 출판용 종이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을까?

그 모순들은 개방화 이후의 중국에서는 모순이 아니다. 공식통계에 따르면, 1989년에 중국은 약 7만5천종 60억권 정도의 책을 출판하였다. 그러나 비공식 집계에 의하면, 그 해에 70억권이 넘게 팔렸다. 팔린 책이 찍어낸 책보다 21.8% 많다. 해를 묶은 재고도서가 날개 돋친 듯 팔린 것도 아니고, 통계숫자의 오차는 1%를 넘지 않는다. 중국의 출판사는 '인민소유제사업단위'이기 때문에 굳이 인쇄부수를 속일 필요도 없다.

찍은 책보다 팔린 책이 많다는 모순의 비밀은 바로 음란서적의 해적출판에 있다.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대만의 여류작가 경요는 1988년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그녀가 쓰지도 않은 포르노소설(색정소설)이 길거리에서 팔리는 현장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을 정도이다. 중국 정부는 80년대에만도 세 차례에 걸쳐 음란·불법출판물 집중단속을 벌였지만, '정신 여역(돌리병)'은 만연된 상태이다.

이같은 사실은 중공 중앙당 홍기(紅旗) 출판사 처장으로 재직중인 황위정(黃葦町) 씨가 지난 92년에 펴낸 「중국의 지하경제」(대외투자개발원, 95년 1월 번역출간)를 통해 적나라하게 밝혀졌다.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탄실한 과실들이 햇살 아래에서 단맛을 더해가는 한편, 중국대륙의 음지에서는 '지하경제'가 고구마 덩굴처럼 탐욕스럽게 부풀고 있음을 이 책은 지적한다. 저축액의 증가율이 임금수입의 증가율을 초



「중국의 지하경제」 뒷표지의 그림. 경제적 고속성장의 큰 나무 밑에는 '지하경제'라는 음지식물이 자라고 있다.

과하는 중국 '특유의' 지하경제실상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데, 그 풍경의 한켠에는 '지하출판계' 요지경이 담겨 있어 특히 주목을 끈다.

이 책에 따르면, 음란출판물의 제조와 판매활동의 우두머리는 단연 '출판상(商)'들이다. 그 출판업자들은 몇년 사이에 허리춤이 불룩한 벼락부자가 되기 일쑤이다. 그들은 작가들에게 고액의 원고료를 선불로 지급한다. "이런 유혹 앞에 작가들이 어찌 머리를 수그리지 않겠는가", 인스턴트 출판을 위해 인쇄소 공장장에게 급행료를 주기도 한다. 푸짐한 술상을 벌이고 슬그머니 '붉은 주머니(뇌물)'를 넘겨주면, 공장장은 다른 일은 쫓겨두고 청탁받은 책을 다투어 인쇄한다. 그런 식으로 음란출판물을 찍어내는 출판업자가 몇천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도색출판물 범람의 원흉은 물론 출판상이지만, '통속문학작가'도 한몫을 차지한다. 1

천자당 1백원 정도의 원고료를 위해 인격까지 판다. 외국어를 전혀 모르는 '번역가'는 외국소설을 아예 창작한다. 천자에 칠팔십원의 가격으로 출판상에게 넘긴다.

인쇄공장도 우후죽순처럼 자라났다. 북경시에는 크고 작은 인쇄공장이 1300여개, 장소성엔 약 6800여개, 사천성에는 7천개가 넘는다. 농촌에도 지하인쇄공장이 많이 생겨났다. "배추를 저장해 두던 헛간에 지하인쇄공장을 만들었다. 이후 집집마다 호응하여 빈곤하기 짝이 없던 마을이 대변에 인쇄에 의해 황폐한 '진문촌'이 되었다. 조판·인쇄·제본을 담당한 전문가가 있는가 하면, 종이공급 전문가와 발행·판매확장 전문가정도 등장하였다."

출판물 유통의 마지막 고리이자 촉수인 판매망은 분업체계를 완성했다. 책을 받아오는 사람, 보관하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 망보는 사람으로 나뉘어졌다. 그들의 대부분은 본래 막일을 하거나, 식모생활을 하거나, 시내에 나와 잡곡을 팔로 바꾸거나, 폐품을 거두며, 암표장사를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서둘러 직업을 바꾸어 수익성 높은 '문화사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힘들고 위험한 일이지만 그들은 지칠 줄 모른다. 일제단속 때 10권을 빼앗겨도 3권을 팔면 본전이였다.

저자는 "지하경제가 범람할 때가 바로 중국경제가 활기를 띠고 발전하던 시기"라고 말한다. 시장경제를 채택한 이후 중국의 출판사는 1백여개에서 5백여개로, 발행종수도 1만종에서 8만종으로 증가하였다. 음란·불법출판물의 범람은 출판대국으로 가는 길 모퉁이의 한 음지라고 그는 말하는 듯하다.

# 출판저널

통권 제166호 / 1995년 3월 20일 발행

발행인—정진숙  
 편집인—전병석  
 인쇄인—이일수  
 편집위원—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환  
 편집주간—이승우  
 편집장—김지원  
 기자—정혜옥 이성수  
 한 강 배은희  
 디자인—윤정자

업무부장—운동호  
 업무·광고—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재)한국출판공고  
 상임이사—최학수  
 총무부장—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한국출판공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타이피아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정신세계사의 신간

Shangri-La

# 상그릴라를 아십니까?

"지평선이 잠깐 열릴 때, 비밀의 낙원으로 들어서라!"

1930년대 초, 네 명의 승객을 실은 비행기 한 대가 의문의 인물에게 납치되어 히말라야의 험준한 산맥 너머로 사라졌다. 비행기가 불시착한 곳은 티베트의 설산 가운데 감춰진 불가사의의 낙원 상그릴라. 상그릴라의 비밀에 접근한 그들은 새로운 운명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되는데... 신비로운 감동을 안겨주는 뉴에이지(New Age) 문학의 고전—《잃어버린 지평선》.

잠깐 열린 지평선 사이로 영원한 동경의 나라 상그릴라에 들어선 세 남자와 한 여자의 운명—미스터리 기법으로 쓴 이상향 소설의 걸작! 절묘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경이의 책!

\*상그릴라 : (비밀의 낙원)을 가리키는 말. 제임스 힐튼의 《잃어버린 지평선》에 처음 쓰인 이후 일부 여행로 사전에까지 실리게 되었다. 지금도 히말라야 곳곳에는 이 상그릴라를 찾기 위해 서성거리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값 5,500원/서점에 있습니다.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대)

# 잃어버린 지평선

제임스 힐튼 장편소설 류시화 옮김